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사역에 관한 고찰(1880~1945)

A historical sketch of the medical missionary work in Korea(1880~1945)

이 상 규*

목 차

서 론

1. 한국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선교
2. 광혜원의 설립과 발전
 - 1) 알렌(Dr. Allen)
 - 2) 헤론(Dr. J. W. Heron)
 - 3) 빈톤(Dr. C. Vinton)
 - 4) 에비슨(Dr. O. R. Avison)
3. 스크렌톤과 민간병원
 - 1) 시(施)병원
 - 2) 보구녀관(保救女館)
4. 각 선교부의 의료선교활동
 - 1) 북장로교 선교부
 - 2) 감리교 선교부
 - 3) 남장로교 선교부
5. 부산지방에서의 의료선교활동
 - 1) 하디(Dr. R. Hardie)
 - 2) 북장로교의 의료선교활동
 - 3) 호주장로교의 의료선교활동
6. 경남지방에서의 의료선교활동
 - 1) 진주지방
 - 2) 통영지방

맺는말

* 신학과, 부교수(역사신학)

서론

한국에서의 의료선교활동은 한국선교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사(宣敎史)는 한국교회사 만큼이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선교에 있어서 전도(preaching), 교육(teaching), 의료(healing)는 사도시대 이후 고전적 의미의 선교의 3대 분야인데 19세기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 선교에 있어서 주된 영역이었다.

특히 서구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 3 세계에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 교육활동을 통한 계몽과 문화적 이기들을 통해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시약소의 설치, 병원의 설립 등을 통한 의료, 보건활동은 복음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구스타프 베르넬(Gustav Warneck)이 지적한 바처럼 서구선교사들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문화전달자(Kulturpropagandisten)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같은 교육, 의료활동을 통한 선교방법을 보통 문화주의 선교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이후 한국선교운동사에 있어서 의료활동은 교육활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사실 기독교(개신교)가 한국에 전래 될 당시인 19세기 후반기는 한국에서 새로운 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서양의술의 수용과 보급은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민족적 요청과 더불어 외국 선교부의 의료, 교육 활동은 한국선교를 위한 이상적인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다.

사실 의료선교활동이 한국 근대의학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선교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운동사를 고찰하는 일은 한국선교운동사를 이해하는 방법인 동시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에도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주리라고 믿는다.

1. 한국에서의 프로케스탄트 선교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운동은 183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시대에 경교(景敎, Nestorians)의 접촉, 곧 경교의 '라대전래설'(羅代傳來說)이나 1593년 임진왜란을 통한 로마 천주교와의 접촉, 병자호란을 통한 접촉, 실학파들을 통한 서교(서학, 西學)영입운동 등이 있었지만 개신교의 전래는 1830년 이후로 부터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땅을 찾아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귀츨라프(Karl F. A. Guzlaff, 1803-1851)였는데 그는 1832년(순조 32년) 황해도로 입선하였다. 귀츨라프목사가 한국을 다녀간 후 33년이 지난 1866년 영국인 토마스(Robert J. Thomas)목사가 대동강으로 입국했으나 곧 순교하였다.

또, 1870년대 만주지방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John Ross)와 맥킨타이어(John McIntyre)

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도되었고, 1876년에는 한국인 4-5명이 세례를 받으므로 한국인으로서는 첫 수세자가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국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선교운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1876년 개항(부산, 인천, 원산)과 더불어 쇄국정책이 폐기되었고, 1882년에는 한미(韓美)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1884년에는 의사 알렌(Dr. H. N. Allen)이 입국함으로써 미국교회에 의한 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의 시작이었다. 이듬해인 1885년 4월에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와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가 입국하였고 동년 6월에는 헤론의사(Dr. John Heron)가 내한하였다.

호주장로교회는 1889년 10월 데이비스 목사(Rev. J. H. Davies)를 파송함으로써 한국 선교를 시작하였고 미국 남장로교는 1892년 레이놀드 목사(Rev. W. D. Reynold)등을 파송하므로 한국선교에 동참하였다. 캐나다인으로 한국에 온 첫 선교사는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이었고, 이어서 의사 하디(Dr. Robert A. Hardie)가 입국하였지만 캐나다장로회가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견한 때는 1898년이였다.

주한 선교부들(주로 장로교와 감리교)은 소위 '예양협정'(Comity arrangement)를 통해 선교지역을 분할하였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경쟁을 막고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조처였다. 몇차례의 조정이 뒤따랐으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미국 북장로교는 재령, 강계,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등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지역을 맡았고,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 전라도 지방을, 캐나다장로교는 함경도와 간도지방을, 호주장로교는 부산과 경남일대를 각각 선교하였다. 또 인천등 경기도 일원과 강원도지방은 감리교선교부 관할하에 있었다.

한국에서 선교를 개시한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그 이후 한국선교를 시작한 각교파의 선교활동에서 의료선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감리교는 물론이지만 장로교의 경우 의료선교는 한국선교 초기부터 강조되었고 선교부(Mission Station)의 설치와 더불어 의료활동, 곧 검역, 시약, 보건·위생교육이 시행되었고 곧 이어 시약소의 설치와 병원설립을 입안, 실행해 갔다.

이러한 의료선교의 중요성은 1893년 장로교 공의회가 정한 선교정책에도 잘 나타나있다. 네비우스(Nevius)선교방법을 원용하여 채택한 정책 중에는, "의료선교사들은 환자들과 오래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고, 깊은 마음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시약(施藥)만 가지고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고향의 마을에 자주 왕래하게 해서 의료선교사들의 인애에 넘치는 간호의 경험을 본받아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1880년대 이후 적어도 1930년에까지는 (그 이후도 물론이지만) 한국에는 각종 전염병과 피부병이 만연하였고 외과적 질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안과, 치과적 병도 심각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의료, 보건활동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선교의 방법이었다.

2. 광혜원(廣惠院, 제중원, 濟衆院)의 설립과 발전

1) 알렌(Dr. Allen)

한국에서의 의료사업은 미국공사관의 공의(公醫)의 자격으로 입국한 알렌의사(Dr. Allen, 1858-1932)로 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오하이오(Ohio)주 델라웨어에서 출생한 그는 1881년 오하이오 웨즐리안 대학에서 이학사(B. S.)학위를 받고 오하이오주 옥스포드에 있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을 받은후 1883년 졸업하였다. 중국선교사로 임명받은 그는 1883년 10월 11일 상해(上海)에 도착하여 의료 선교사로 일하던 중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고 선교본부의 동의를 얻고 1884년 9월 내한 하였다. 처음 그는 공사관의 공의의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갑신정변(1884. 12. 4)때 부상당한 수구파의 거두 우영사(右榮使) 민 영익(閔泳翊, 1860-1914)을 3개월간 치료하여 준 일로 왕실의 신임을 얻고 공개적인 의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고종의 시의(侍醫)로 임명받은 알렌은 미국 공사관 대리 공사 폴크(George C. Foulk)를 통해 한국정부에 서양식 병원건립을 제의하였고, 이 병원인 1885년 4월 10일 재동(이윤봉의 저택터)에서 개원한 광혜원(廣惠院, House of Extented Grace)이다.

이 때에 장로교본부와 광혜원과의 관계는 장로교본부는 진료의 책임자를 제공하는데 불과했고 정부는 건물과 제반설비 및 경상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알렌은 국립병원의 고용인으로 일한 셈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에서의 의료사업은 시작되었다.

왕립병원인 광혜원은 개원 13일 후인 4월 23일(음력으로는 3월 12일)에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제중원(濟衆院,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이란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그 해 5월 3일에는 미국 북감리회가 파송한 스크랜톤(William B. Scranton)이 내한하여 5월 22일부터 제중원에서 근무하였고, 6월 21일 내한한 북장로교의 헤론의사(Dr. Heron) 또한 제중원에서 봉사하였다.

당시 이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하루 265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도 있었으며 개원후 일년간 10,46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그 중 800여명이 부녀자였다고 한다)이 중에서 394건의 소규모 수술과 150건의 마취를 요하는 대수술을 했다. (“The Beginning of Medical work in Korea”, *Korea Repository*, Vol. I, Dec. 1892, P. 356)

환자는 절인 나환자로부터 궁정의 귀인까지 다양했고 왕진도 빈번했다. 훈련된 간호사가 없던 초기에는 기생 몇을 채용해서 진료를 돕게 했는데 당시 풍습이 기생은 남녀간에 간격없이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총명하여 필요한 기술을 잘 습득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후에는 여선교사들 이틀테면, 테이트(Miss Mattie Tate)와 아부클(Miss Victoria Arbuckle)등이 간호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 후에는 젊은 과부나 쫓겨난 첩들을 훈련시켜 간호원으로 일하게 하기도 했다. 간호사란 직업이 젊은 여성들의 품위있는 직

업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의 날들이 필요했다.

이 병원은 날로 증가하는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7년 재동에서 현재의 울지로 입구인 구리개(銅峴)로 이전하였다. 병원건물은 개화파 인물로 타살당한 홍 영식(洪英植)의 집을 수리하여 병원건물로 사용하였다.

또 이 병원에서는 1886년 부녀과를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 볼 때 남자의사가 부녀자를 치료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이다. 부녀과의 책임은 그해 7월 4일 입국한 엘러스양(Miss Annie J. Ellers)이 맡았다. 그녀는 여의사로서 ‘왕비와 궁중여인들로부터 충심의 환영’을 받았고, 곧 민비의 시의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감리교 선교사 벙커(D. A. Bunker)와 결혼하게 되자 이 병원을 사임하였다. 그래서 1888년에 입국한 의학박사 호튼(Dr. Lillias Horton)양이 엘러스의 후임으로 일하였고, 정동과 모화관(慕華館)에 있는 진료소를 책임 맡기도 했다.

2) 헤론(Dr. J. W. Heron)

2년 5개월간 병원 책임자로 일했던 알렌은 1887년 9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주미 한국공사관 서기로 부임하였다. 이렇게 되자 헤론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헤론은 알렌보다 늦게 입국하여 제중원에서 일했으나 의학적 지식과 인술은 알렌을 능가하였다. 이것이 한때 알렌과 헤론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헤론(John W. Heron, 惠論, 1858-1890)은 미국 장로교 선교부로 부터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점에서 미국 장로교의 한국 선교의 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1858년 조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그의 나이 14세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Knoxville)로 이주하였고 1883년에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미국으로 이민온지 꼭 11년만에 이 대학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모교인 테네시 의과대학에서는 교수요원으로 남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

그후 그는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였고 블랙웰 아일랜드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그는 한국선교사로 임명받은 첫 미국인이었으나 입국은 알렌보다 9개월 늦은 1885년 6월이었다. 입국 즉시 제중원의 의사로 임명된 그는 알렌의 뒤를 이어 병원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탁월한 의술로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립병원 책임자로서 격무에 시달렸고 한국에 온 지 5년만인 1890년 7월 26일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둔채 이질로 사망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그는 서울에 주재했던 외국인으로써 첫 희생자가 되었다.

3) 빈튼(Dr. C. Vinton)

헤론이 순직한 후 캐나다출신 의사 하디(Dr. R. A. Hardie)가 4월까지 임시원장으로 있었고 그후 의사 빈튼(Dr. C. Vinton)이 1891년 4월 내한함으로써 제중원 원장으로 취임

임하였다. 빈튼은 119일간 일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1,633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67명을 입원치료하였고 74회의 소수술과 19회의 대수술을 집도했다고 했다.(Letter to Vinton to Ellinwood, Dec. 19, 1892) 그는 국립병원인 제중원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에 제약이 있었으므로 1892년 9월 1일부터 그의 자택에 진료소(Dispensary)를 설치하고 진료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4개월간 그의 사저인 진료소에서 187명을 치료했고 이들에게 전도하였는데 의료사업은 복음전도의 첩경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4) 에비슨(Dr. O. R. Avison)

그후 북장로교 선교부는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에비슨박사(Dr. Oliver R. Avison, 魚不信, 1860-1956)를 1893년 병원책임자로 파송하였는데, 그는 11월 1일부터 빈튼을 대신하여 국립병원장에 취임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출신인 그는 오타와 사범학교를 마치고 1884년에는 토론토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3년 수학한 후 식물학 강사가 되었다. 그후 그는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의과대학에 편입하여 의학을 공부하였고 1890년에는 의사가 되었다. 그는 모교인 의과대학에서 약리학 강사로 일하는 한편 개인병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그는 그의 나이 32세 때인 1892년 한국 선교를 자원하였고 이듬해인 1893년 6월 16일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는 그해 11월 부터 제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1935년 12월 75세의 나이로 은퇴하기 까지 42년간 한국에서 일했다.

원장에 취임한 에비슨은 병원에서 연락관외의 모든 관리를 철수케 했고 병원의 전재 산권을 장로교 선교부로 이관시키는 동시에 병원의 개축과 운영에 관한 제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대 개혁 조치를 취하므로 병원 경영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1894년 4월에는 여의사 화이트링(Georgiana Whiting)과 간호사 제이콥슨(Anna Jacobson)이 내한하여 함께 일했다. 이 때의 병원 건물은 한국식 단층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의료시설이나 치료 기구는 변변치 못했다. 1899년 에비슨은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후가차 본국으로 돌아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인 건축가 고든(H. B. Gorden)에게 현대식 병원설계를 부탁하였다. 1990년 봄 뉴욕에서 모인 「해외선교에 관한 에큐메니칼회의」(Ecumenical Conference on Foreign Missions)에서 강연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에 관해서 강연하게 되었는데 이때 강연을 들은 스탠다드 석유회사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L. H. Severance)씨는 1만 달러를 회사하였다. 이 세브란스씨가 회사한 금액의 기부금을 가지고 1902년 남대문밖(현 서울역전, 도동)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 신축을 시작하여 1904년 완공하였고 그해 11월 정식 개원하였다. 이 때에 병원 이름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세브란스 병원이라 하였다. 세브란스씨는 또 의료선교사 한사람의 사역비를 지원하였는데 그 의사는 1934년까지 한국에서 봉사하였던 허스트(Dr. J. W. Hirst)였다. 개원 17개월이 지난 후 보고된 기록에 의하면 490명의 입원환자와 1만 6천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했다고 한다. 거액을 기증했던 세브란스씨는 1907년 주치의 루드로우(Dr. A I. Ludlow)를 대동하고 방한 하였는데 병원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추가로 3만 달러의 선교비를 회사하고 자신의 주치의를 한

국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래서 루드로우씨는 1938년 은퇴시까지 한국에서 의과외사로 일했다.

어떻든 에비슨은 영예로운 교수직과 의사직을 버리고 내한 한 이후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의학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의 책임자로 한국의료선교사와 한국의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중원에서는 의학교육도 겸하였는데 알렌의 보고에 의하면 1886년 3월 29일에 시작되었다. 경쟁시험을 거쳐 1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고 이들에게 영어, 기초과학분야와 의학교육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또 에비슨은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한 후 1899년부터는 정규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교육기관이었다. 7명의 젊은이들을 의학교육을 받은후 각종시험에 합격하므로 1908년 졸업과 동시에 의사가 되었다.

3. 스크랜튼과 민간병원

1) 시(施)병원

제중원의 경우가 왕립병원의 성격을 띤 것임에 반하여 민간병원의 경우는 미국 북감리교 의료선교사 스크랜튼(William Scranton)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885년 5월 3일 입국한 스크랜튼은 6월 24일까지 알렌을 도와 제중원에서 봉사했으나 헤론의 내한을 계기로 병원을 사임하고 미국 공사관 근처의 집을 매입하여 독자적인 의료활동을 구상, 준비하였다. 그러다가 9월 10일 사저에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이것이 감리교선교부가 중심이 된 민간병원인 시(施)병원의 시작이었다. 시병원(Universal Relief Hospital)이란 이름은 후일(1886. 6) 고종이 하사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미국의사 진료소'로 불리었다. 이 병원을 개원할 때 스크랜튼의 한국어 선생은 '미국의사 진료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병이든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치료받을 수 있음'이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한다. 이 병원의 설비는 미비하였으나 설립후 9개월 동안 522명의 환자를 검진, 치료하였고 일년간 842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 병원이 시설을 정비하고 환자를 입원시켰을 때는 1886년 이었다. 또 스크랜튼은 1886년 선교보고서에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진료소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전염병 환자들은 적절한 대책도 없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국 선교부로부터 지금을 허락받은 감리교 선교부는 1888년 12월 성밖에 버려진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아현동과 상동에 설치된 진료소였다. (아현동 진료소는 제정상의 이유로 1890년 폐쇄됨) 이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였다. 1887년에는 정동 시병원을 구리개로 옮겨 남대문 상동병원으로 개칭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스크랜튼이 한국에 온지 3년째이던 1888년 한해동안 5천 5백 여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한다.

2) 보구녀관(保救女館)

미감리회 의료사업에 있어서의 공헌은 여성들을 위한 진료였다. 당시로서는 남녀를 한 병원에서 진료하기는 어려웠고, 남자가 사가(私家) 여자들을 진료하는데는 거부반응이 컸다. 이에 스크랜튼은 선교부에 어린이와 부녀자를 위한 병원을 구상하고 여의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1887년 10월 20일에 내한한 하워드(Miss Meta Howard)가 정동 이화학당 구내에서 여성과 어린이만을 위한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민비(명성왕후)는 이를 가상히 여겨 보구녀관(保救女館)이라는 병원 이름을 하사하였다. 하워드는 미감리회의 최초 여의사였다. 그러나, 하워드양은 건강의 악화로 2년 후 본국으로 돌아갔고(1889년 9월) 그대신 로세타 셔우드(Rosetta Sherwood)양이 1890년 10월 14일 내한하여 부인병원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3년동안 셔우드는 1만 4천명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녀는 한국 도착 즉시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힘으로'(Medical work for women by women)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을 위한 의료교육도 시작하였다. 이때 교육을 받아 후일 한국인으로 첫 의사가 된 사람이 김에스터인데 귀국하여 정동부인병원에서 봉사하였다. 이 병원은 1892년에는 동대문 분원을 설치하고 볼드윈 시약소(Boldwin Dispensary)라고 명명하였다. 여의사 커틀러(Miss Mary Cutler), 헤리스(Miss Lillian Harris, 1897, 10), 에른스버그(Miss Emma Ernsberger, 1899, 9)등이 와서 일했다. 이 병원이 정동에서 동대문으로 이전하였는데 여의사 헤리스가 1902년 소친한 이후 그녀를 기념하여 릴리안 헤리스 기념병원(The Lillian Harris Memorial Hospital)으로 개칭되었고 1930년부터는 동대문부인병원으로 불렸다. 이 병원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4. 각 선교부의 의료선교활동

1) 북장로교 선교부

이상에서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와 감리교의 의료선교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제 각 지방에서의 의료선교활동에 대해 일별해 보려고 한다.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요교파들이 여러 지역에 선교지부(Mission Station)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선교사역도 자연스럽게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북장로교가 두번째로 선교지부를 설치한 곳은 부산인데, 부산에서는 1891년 이래로 시약소를 시작으로 의료선교가 시작되었다. 특히 1893년 어빈(Irvin)의사 부처가 내부하여 진료소를 개설하고 의료선교를 시작하였는데, 부산·경남지방에서의 의료선교활동에 대해서는 차항에서 별도로 취급하였다.

평양에서의 의료사역은 이곳에 선교부를 설치한 189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래드병원(Ladd Hospital)으로 발전하였고 다시 평양기독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병원은 후에 감리교의 선교병원이었던 기흥병원과 합병하여 1923년에는 평양연합기독교

원이 되었다.

경북 대구에서의 의료활동은 1899년 존슨(W. O. Johnson)의사가 진료소를 세우므로 시작되었는데 눌(Null), 플레처(Fletcher), 스미스(Smith), 호이트(Hoyt) 등이 진료활동을 계속하였고, 카메론(Cameron)등 다수의 간호사가 참여하여 오늘의 동산기독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이 병원의 지병원으로 안동 성소병원, 포항 선린병원, 경주기독교병원 등이 있다.

1913년 대구에 나병원이 설립되었는데 당시의 동산병원장 플레처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나병원은 1963년에 이르러 현대식 병원시설을 갖춘 애락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북장로교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평양, 대구 등지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이밖에 북장로교가 경영하던 병원으로는 평북선천에서 1901년 샤록스(Sharrocks)의사가 시작한 시약소에서 출발한 미동병원, 강계에는 밀즈(Mills)에 의해 시작된(1909)계례지병원 등이 있다.

2) 감리교 선교부

북감리회 선교부 또한 서울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교초기 한국정부는 전도사업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감리교 선교부는 병원이나 시약소를 통한 간접선교를 강조하였다.

원산에서는 1889년 내한한 맥길(William B. McGill)에 의해 진료소가 설치되므로 의료활동이 시작되었지만 1898년이후 하디(Dr. R. M. Hardie)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1901년에는 로스(Dr. J. B. Ross)가 내한하여 하디를 보좌하였고 후에는 로스가 이곳에서의 의료활동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병원이 원산구세병원이다.

평양에서는 캐나다 출신 의사이자 목사인 홀(William J. Hall, 1860-1895)에 의해 1892년 의료활동이 시작되었다. 1860년 1월 1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글렌 뷰엘(Glen Buel)에서 태어난 홀은 킹스톤(Kingston)에 있는 퀸즈(Queens)대학에서 의학공부를 하였고 다시 뉴욕의 벨리뷰(Bellevue) 의과대학을 거쳐 감리교 의료 선교부 책임의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후 그는 북감리교 선교사로 임명받고 1891년 12월 내한하였다. 이듬해인 1892년 3월에는 존스(Jones, 1887년 내한) 목사와 함께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순회하였고 1892년부터는 평양지방에서 의료선교에 종사하였다. 1892년 6월에는 앞서(1890)내한한 여의사 셔우드양과 서울에서 결혼하였다. 청일전쟁중에는 잠시 서울에서 지낸 일이 있으나 전쟁때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당시 만연하던 콜레라와 장티푸스등 전염병 치료등 과로에다 학질까지 발병하여 평양을 떠나 선편으로 인천을 거쳐 한성으로 돌아갔으나 1894년 11월 24일 사망하였다. 한국에 온 지 꼭 3년 만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홀의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의 미망인 Rosetta Sherwood Hall이

쓴 전기,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M. D.*를 참고할 것) 홀의사인 미망인 로세타 셔우드(Rosetta Sherwood) 여사는 겨울 들을 지낸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그녀는 임신 7개월째였으므로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다. 3년 후인 1897년 그녀는 아들 셔우드와 딸 에디스를 데리고 다시 한국 선교사로 나왔으나 유복녀인 딸 에디스는 이질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에서 남편과 딸마저 잃은 그녀는 동료, 친지의 협조를 얻어 홀의사를 기념한 기홀(紀笏) 병원(The Hall Memorial Hospital)을 평양에 설립하였는데 이 병원은 1897년 2월 포웰의사(Dr. E. D. Follwell)을 원장으로 개원하였다. 자신은 이 병원에서 부인과장으로 일했다. 평양에서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이 병원은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으로 크게 공헌하였다. 1910년 한해동안 5,862명의 환자를 치료하였고 수술을 받은 환자는 1,562명에 달했다.

이 병원에는 홀 부인의 노력으로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인 정진학교도 개설하였는데, 이것은 맹인을 위한 선교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기홀병원은 1920년에는 평양의 장로교병원과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1923년부터는 평양연합기독교병원으로 개칭되어 장·감두선교부에 의해 공동운영되었다. 로세타 셔우드는 도합 47년간(1890. 10-1894. 11, 1897-1940)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1940년 한국을 떠났다. 그후 1951년 4월 5일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황해도 해주에서도 1900년부터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노튼(Dr. A. H. Norton)의사가 자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1913년 병원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노튼기념병원(The Louisa Holmes Norton Memorial Hospital)이다. 이 병원이 후일 해주구세(救世)병원이 되었다. 이 병원은 1928년 결핵전문병원인 해주 구세 요양원(Haiju Tuberculosis Sanitarium)을 부설하였다. 이 요양원은 윌리엄 홀의 아들로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후일 의사가 된 셔우드 홀(하락, 賀樂)이 1926년 내한하여 1928년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셔우드 홀에 대해 부기해 두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윌리엄 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다시 내한하여 한국에서 살았다. 그의 나이 18세때인 1911년 미국으로 건너가 마운트 유니온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그후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후 역시 의사였던 마리안 버텀리(Marian Bottomly)양과 결혼하고 1926년 한국 선교사로 내한 하였다. 한국을 떠난지 꼭 15년 만에 한국으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해주 구세병원에서 일하면서 해주 의창(懿昌)학교 교장직을 겸임하였다. 그후 그는 조선에서의 결핵의 심각성을 보고 결핵 퇴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폐결핵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선에서는 최초로 결핵요양원인 구세요양원을 1928년 해주 교외 왕신리(王神里)에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후 결핵협회(The Tuberculosis Association)를 조직하고 1932년 12월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쉼을 발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때로부터 1940년까지 14년간

한국에서 실로 값진 봉사를 하였다. 그는 1940년 일제로부터 간첩 누명으로 체포되어 제판을 받고 그해 10월 9일 한국에서 추방되었다. 그후 그는 인도로 가서 23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후 1963년 은퇴하였다. 본국에서 노후를 보내던 홀의사는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1978년 *Will Stethoscope in Asia : Korea* 라는 자서전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후 홀의사는 1992년 98세를(부인 마리안은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유해는 유언에 따라 서울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개성은 남감리회 선교지역이었는데 1901년부터 로스선교사에 의해 병원설립이 준비되었고 1907년 이위만선교사(Dr. Wightman Reid)에 의해 ‘아이베이 기념병원(Ivey Memorial Hospital)’이 설립되었다. 이것이 후일 개성 남성(南星)병원이 되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1900년부터 모리스부인(Mrs. L. O. Morris)이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후일 맥매니스 의사가 활동하였고, 그의 노력으로 1912년 스웨덴기념병원, 곧 서미감(瑞美監)병원이 설립되었다. 이 병원은 전도와 계몽사업에도 기여하였다. 이 병원은 원주기독교병원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원주의대부속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밖에 인천, 수원, 공주 등에도 미감리회의 의료활동이 있었고 특히 인천 진료소는 인천기독교병원으로, 수원에서는 수원기독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병원들은 단순한 진료사업 뿐 아니라 원목실을 통한 복음전도와 순회진료 및 전도, 개척교회지원과 기독교인에 대한 무료진료 혜택을 주었다.

3) 남장로교

남장로교 선교부 역시 전도사역과 함께 의료사역을 병행하였다. 전주지역에서 사역했던 테이트(Tate)와 헤리슨(Harrison)등은 잉골드(Ingold) 의사와 함께 진료와 시약소를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예수병원으로 발전하였다. 1897년에는 두루(A. D. Drew)에 의해 군산에, 1898년에는 오웬(C. C. Owen)에 의해 목포에 진료소가 설치되었고, 1899년에는 잉골드양(Miss M. B. Ingold)에 의해 전주에 부녀 진료소가 개설되었다.

그외에도 1904년 포사이드, 다니엘, 놀란의사 등이 내한하여 전주, 군산, 목포등지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다. 포사이드 의사는 목포와 광주 노상에서 데려온 한 여자 문둥병자를 진료하였는데, 이 작은 시작이 윌슨 의사에 의해 광주 나병원이 설립되었고 오늘의 여수 애양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의 구라선교의 한 금자탑이 되었다.

4) 캐나다(장로교, 연합교회)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경우 그리어슨(R. G. Grierson), 머레이(F. J. Murray), 블랙(Black)의사 등이 활동하여 함흥의 제혜병원을 1908년 6월에 설립하여 함남 굴지의 병원으로 육성하였다. 그리고, 성진, 용정 등지에도 의료사역을 전개하였는데 용정의 제창

병원은 이 지역 한인들의 진료와 선교는 물론이며 3·1운동을 전후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병원장 마틴(S. Martin)은 한국인 독립운동가 및 기독교 지도자들과 자주 회합을 갖고 세계 여론을 전하며 독립운동을 격려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이 지역의 병원들은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공산정권의 치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여기 참고로 1913년 까지의 각 교파의 병원(혹은 진료소)설립현장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4에 의함)

교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안식교
	북장	남장	캐나다장	호주장	북감	남감	여선교회		
지역	강계 선천 평양 제령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부산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회령) 성진 함흥 (원산)	진주 (통영)	영변 평양 해주 원주 공주	원산 송도 춘천	평양 서울	제물포 진천	순안

* 괄호()표는 진료소만 있는 곳임

5. 부산지방에서의 의료선교운동

개항이전의 부산, 경남지방의 의료실태는 실로 원시적인 상태였다. 경험적 의술의 일종인 한의술과 비과학적 사마니즘과 관련된 무속신앙과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의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이지방 사람들의 수명은 남, 여 평균 40세 정도에 불과하였고 영아 및 유아사망율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개항(1876. 2. 26)과 함께 이 지방 의료 상황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독일식 일본 의술과 선교사를 통한 서양의술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있었으므로 일본인 의사가 있었고 이들을 통해 독일식 의술이 소개되었다. 개항당시 부산 초량에는 일본인 의사 高田英策이 있었고, 그후 일본 해군 대군의(大軍醫) 失野義徹의 노력으로 작은 병원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1876년 11월 13일 현재의 동광동에 설립되었던 제생의원(濟生醫院)이었다. 이 병원은 1880년에는 용두산 공원밀으로 이전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원하였고 1885년 10월부터는 공립(共立)병원으로, 1893년 9월에는 공립(公立)병원으로, 1906년 12월에는 부산거류민단립(居留民團立)병원으로 각각 개칭되면서 규모와 시설이 확충되었다. 청일전쟁때는 일본 병참병원이

기도 했던 이 병원은 1914년에는 부산 부립(府立)병원으로 그리고 현재의 부산의료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 비록 일본인 의원이 있었으나 이 지방민에 대한 도움이나 의료시혜는 거의 없었고 1880년대 이후 선교사들의 내부 이후 비로서 이 지방 한국인들에 대한 의료활동이 구체화되어 갔다.

1) 하디 의사(Dr. Robert Hardie, 1865-1949)

부산에 온 최초의 의료선교사는 하디의사였다. 1865년 6월 11일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할디만(Haldiman)에서 출생한 그는 1890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9월 30일 토론토 대학 기독교청년회(YMCA)의 파송으로 내한하였다.

그는 이때로부터 1892년 11월 부산을 떠나 원산으로 가기까지 약 2년간 부산에 체류하며 선교사역에 종사하였다. 그는 항만지역 의사로서 선박검역관으로 봉사하였고,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1891년 봄에는 호주장로교 선교사로 이적하려고 고려한 일도 있다.

그후 그는 원산으로 가서 캐나다에서 온 독립선교사 펜윅(Malcolm C. Fewick)집의 방한칸을 빌려 간이치료소로 이용하며 의료선교사로 봉사하였다. 1898년에는 미국 남감리교로 이적하였고 1906년 이후에는 한국교회의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2) 북장로교의 의료선교

북장로교의 부산에서의 의료사업은 1891년 12월 의사인 브라운(Dr. Hugh M. Brown) 선교사의 내부와 함께 시작되었다. 부산에 온 두번째 북장로교 선교사인 브라운은 자기집에 작은 시약소를 설치하고 의료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위생점검, 검진, 시약 등에 주력하였다. 당시 부산에는 외국인 의사가 없었던 때이므로 한국인들은 브라운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였으나 마땅한 건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의료사역을 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결핵의 감염으로 부산에서 일할 수 없었으므로 부산에 온 지 2년후인 1893년 귀국하고 말았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간 지 2년이 못되어 1896년 1월 6일 뉴욕의 덴빌(Danville)에서 병사하였다.

1893년 11월에는 어빈의사(Dr. Charles H. Irvin)가 브라운에 이어 두번째 의료선교사로 부산에 왔다. 한국명 어을빈(魚乙彬)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1911년 3월말까지 부산에서 일한 후 선교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사업(그는 지금의 부산 영주동 영선고개에 어을빈의원을 설립, 개원하였다)으로 1935년까지 부산에 계속 체류하였다. 어빈의사는 당시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로 알려졌고 '어을빈 만병통치약'을 개발하여 환자들을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어빈의사가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부산에는 '메리 콜린스 휘팅 시약소(Mary Collons Dispensary)'가 설립되었다.

sary)'가 건립되었는데, 이것은 북장로의 부산에서의 의료선교의 중심지역이 되었다. 이 시약소는 190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해 9월에는 부산, 경남지방에서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정킨 기념병원(Junkin Memorial Hospital)이 건립되었다. 특히, 이 병원은 미국 뉴저어지(N. J.)주의 몬트클레어(Montclair)에 있는 제1장로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립되었다. 이 교회는 전임목사였던 정킨목사(Rev. William F. Junkin, D. D.)를 기념하여 병원건립기금을 보냈던 것이다.

어빈의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도 바로 이 교회였다. 로드스(Rhodes)는 그의 책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에서 “정킨 기념 병원은 한국에서의 첫 근대식 병원이었다(p. 128)”고 기록하였다. 이 당시 곧 1904년 부산에는 17명의 의사(외국인 선교사, 일본인, 한국인등)와 2명의 치과 의사, 2명의 약사, 11명의 산과원등 32명의 의료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장로교의 부산 의료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1890년대 부산에는 약 5,00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의사는 있었으나 한국인을 위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에는 많은 질병과 유행병(특히, 콜레라)이 있었으므로 이 병원의 역할과 봉사는 지대하였다. 북장로교 선교부의 1901년 보고서에 의하면 정킨기념병원이 설립된 이후 약 8년간 약 6만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9천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했다. 또 2,500회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4,400회의 왕진을 했다고 한다(Rhodes, P. 128).

어빈은 이 병원의 책임자로 크게 봉사하였는데 당시 한국인 조수로는 조 지우(Cho Ti You)씨가 있었는데 그는 능력있는 보조의사이자 전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어빈은 한국인 고 명우(高明宇, Koh Myung Oo)에게 하루 다섯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며 의료교육을 시키기도 했는데 후일 그는 세브란스 의전을 거쳐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수, 그리고 남대문교회 장로로 봉사하였다. 그는 부산지방의 초기 한국인 전도자였던 고 학윤의 아들이었고 서울여대의 설립자인 고헌경(高鳳京)의 부친이었다. 어빈이 선교사직을 사임한 때인 1911년까지 연평균 6,000-10,00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교병원답게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예배로 시작하였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약처방전, 약포장지, 벽, 의료관계 상자 등에 성경말씀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이 병원은 비록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어빈이 사임한 후에는 밀소(Mills), 비거(Bigger)의사들이 이 병원에서 의사로 봉사하였다. 1913년 말로 북장로교의 부산지역에서의 선교사역은 중단되었고 선교사역지를 밀양, 대구 등지로 옮겨갔다. 이것은 부산, 경남지방에서 함께 선교하던 호주 장로교 선교부와 의 선교지역 재조정 협약에 따른 조치였다.

3) 호주 장로교회의 의료선교활동

호주 장로교회의 의료사업은 타선교부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다. 타선교부의 경우 의료 선교는 복음선교와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호주 장로교의 경우 의료선교는 한국

선교를 시작한 12년 후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온 첫 의료선교사는 커를의사(Dr. Hugh Currel, 한국명 거 열휴)였다. 그는 1902년 5월 19일 내부하였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이미 부산에 소규모의 병원과 시약소가 있었으나 호주 선교부에는 의료요원이 없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의사 선교사의 파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외에도 마땅한 의료선교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아일랜드 출신인 커를의사가 한국 선교를 지원함으로써 그는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청년연합회의 파송을 받아 내한하게 된 것이다. 호주 장로교의 청년연합회는 맥카이 선교사를 파송한 직후, 곧 1892년 부터 의료선교사 파송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로 부터 꼭 10년이 지난 1902년 커를의사를 파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만주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고 있었고 또, 의료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를은 만주지방 선교사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섭리는 켈틀로 하여금 만주로 갈 수 없도록 인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커를은 1889년 호주 빅토리아주로 이거하였다. 빅토리아에 온 그는 벤딩고(Bendigo)에서 그리 멀지 않은 키아브람(Kyabram)에서 15개월 그리고, 루더글렌(Rutherglen)에서 약 2년간 일반의로 일하였다. 그가 이곳에 있는 동안, 즉 1899년 호주를 방문한 한국선교사인 아담슨(Admson)을 만나게 되었고, 아담슨을 통해 부산지방 의료선교사가 긴급히 요청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커를은 빅토리아 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고 1902년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된 것이다. 커를 의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선교부로서의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아담슨 선교사는 첫 의료선교사인 그의 내한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커를 의사의 내한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실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로서의 의료사역은 시급하고도 긴급한 요청이었다. 커를 의사는 1902년 10월에 작성한 1902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사역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Medical Work in Korea, May to September, 1902)에서 자신은 한국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 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고 했고 몸이 심히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환자들을 돌보아야 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시약소로 쓸만한 공간이 없었으므로 부산진의 일신(日新)여학교의 작은 교실 하나를 빌려 사용했으나 1902년 7월에 약 23파운드의 돈으로 또 하나의 작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커를 의사는 이전의 학교 교실 한칸을 시약소 겸 간이치료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커를은 매일 평균 20여명에게 치료를 해주거나 약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물론 시약소를 찾은 사람은 어떤 날은 30명이 넘기도 했다. 어떤 날은 10여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평균 하루 20여명이 시약소를 찾아왔다고 했다.

커를이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1902년 9월에는 부산과 인근지방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일본을 통해 유입된 이 때의 콜레라 때문에 많은 인

명피해가 있었다. 당시 초량지방에는 2,8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300여명이 부산진(Oil Pusan)과 고간, 양산고개 인근에는 2,800명에서 3,000명의 인구중 700여명이 콜레라로 사망하였으니 이때의 전염병은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를은 약품과 소독약을 분배하고 주사를 놓아주며 치료에 임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공헌이었고 한국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1903년에는 앵겔(왕 길지)목사와 함께 기장, 기찰, 압평 지역으로 의료순례 여행을 다녔고, 아담슨과는 양산지역으로 순회하며 치료와 시약을 배풀었다.

부산지방에는 일본인 의사도 있었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는 작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었으므로 커를 의사는 시약소마저도 없는 경남지방의 다른 곳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이 보다 뜻있는 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1905년에는 호주장로교 해외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부산을 떠나 진주로 갔다. 그래서 커를은 진주땅을 밟은 첫 서양인(외국인)이자 첫 의사가 되었다. 동시에 호주 장로교회가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진주에 선교지부(Mission Station)를 개설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당시 부산 선교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나병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의 시작이었다. 천형병(天刑病)으로 알려질 만큼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인데 당시 한국에는 많은 나병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나 보호없이 떨시나 천대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위한 사역은 필요하고도 긴급한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1904년 어빈과 빈톤의사(Dr. Vinton) 스미스(Dr. W. E. Smith)등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나환자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환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되었고, '나병선교회'(The Mission of Lepers in India and the East, 1894년 더블린 Dublin에서 창립된 선교단체)의 재정지원으로 1909년 11월 나환자 수용소(Leper Asylum)가 부산(남구 우암동)에 건립되었고, 이듬해 1910년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환자 수용소가 호주 선교부로 이관되었고, 1910년 2월 내한한 맥켄지 선교사가 이 일에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맥켄지(Rev. J. N. Mackenzie, 한국명 매 견시, 梅見施)선교사는 호주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15년간 뉴 헤브리디(New Hebrides) 선교사로 일한 바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한국선교사로 지원하였고 1910년 내한하게 된 것이다. 비록 그는 목사선교사였으나 글라스고우(Glasgow)에서 일정기간 의료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돌보는 중임을 맡게 되었다.

어떻든 이렇게 시작된 나환자 수용소는 처음 20명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되었고 1911년에는 50여명으로, 1914년에는 8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는 수백명의 나환자를 수용하는 나환자 정착촌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남·여 환자들을 위한 두동의 건물 뿐이었으나 맥켄지 선교사의 봉사에 힘입어 수용소 시설은 크게 확충되었다. 어떻게

나병환자들을 수용·보호하고 적절한 시약들을 배풀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가장 값진 사역의 하나였다.

6. 경남지방에서의 의료선교 활동

해방이전까지 경남지방에서의 의료선교활동은 이 지방에서 선교하였던 호주 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호주 장로교는 진주에 배둔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선교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고, 다른 선교지부, 곧 부산, 마산, 통영, 거창 등지에는 시약소와 아동복지 및 건강관리소(Baby Welfare Work and Health Clinics)를 운영하면서 지역보건,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전까지의 경남지방 의료선교활동에 대해 간단히 일별해 보고자 한다.

1) 진 주

1905년 커를 의사 내외가 박 성애(朴 晟愛)부부와 함께 진주에 이거하므로 진주에서의 호주 장로교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진주는 부산 못지 않게 중요한 지역이었다. 진주는 경상남도 지역의 중심도시이자 1925년 이전까지는 경남도청 소재지였다. 특히 이곳에는 병원이나 양의(洋醫)가 없었으므로 이곳에서의 의료활동은 긴박한 요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커를의사 부처는 부산을 떠나 진주로 갔는데 이때가 1905년 10월 20일 이었다. 커를과 박 성애는 진주성 내면 4동(북문안)에 있는 정 경철씨 소유 초가집을 임시 거주지로 얻었고 이 한옥의 방 한칸을 시약소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이 지방에서의 의료활동의 시작이었다. 커를은 시약소를 중심으로 의료, 보건 증진을 위해 봉사하였는데 비록 시설과 장비가 미약했으나 후일 병원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연 평균 7,000명이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를은 이 지방에서의 병원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였다. 호주 장로교 여전도회가 1906년 6월 825파운드를 보낸 이후 호주 교회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1913년에는 경남지방 최초의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이것이 배둔 병원(Mrs. Paton Memorial Hospital)이다. 이 병원은 호주 장로교회의 탁월한 선교사였던 페이튼 여사를 기념하기 위한 뜻으로 설립된 병원이므로 배둔 병원으로 명명된 것이다. 병원 설립이 준비되고 있을 때인 1910년 간호사인 클라크양(Miss. F. L. Clerke)이 내한하여 진주로 배속되어 커를을 도왔고, 1911년에는 의사 맥클라렌(Dr. C. I. McLaren)이 내한, 진주에 배속되었다. 한국명 마 라연(馬 羅蓮)으로 잘 알려진 맥클라렌은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신경정신과 의사였는데 1911년부터 1923년, 그리고 1939-1941년은 진주 배둔 병원에서 1923-1938년까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과 의전에서 교수로 봉사하였다. 1918년에는 여의사 데이비스양(Dr. E. J.

Davies)이 내한, 진주 배돈 병원에서 봉사하였다. 그녀는 이미 1910년 내한한 언니(Miss. M. S. Davies)와 함께 근 30년간 봉사하였는데 이들은 한국에 온 첫 호주 선교사였던 데이비스 목사의 조카들이었다.

이 병원은 진료만이 아니라 간호사 양성에도 힘을 썼는데 처음에는 간호사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직업이 아니라는 오해 때문에 지원자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부와 문맹자를 간호사로 교육시켰고, 1930년대 부터는 지원자가 늘어 자격을 갖춘 여성을 교육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1939년에는 간호사인 孫양과 李양을 호주 멜보른에 유학을 보냈는데 귀국후 孫양은 세브란스에서 李양은 배돈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이 병원 원장으로는 커틀(1915년까지), 맥크라렌(1915-1923), 테일러(1923-1938), 데이비스(1938-1941)가 봉사하였다. 배돈 병원은 경남 유일의 선교 병원으로서 이 지방 의료선교의 중심 병원이었음이 분명하다.

2) 통 영

통영(지금의 충무)에 호주 선교 지부가 설립된 때는 1913년이였다. 이 지방은 많은 섬들이 있고 진주까지 교통상 왕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호주 선교부는 진주에 이어 통영에도 병원을 설립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으나 이 일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호주 선교부는 타 지방에 비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방에서 일한 첫 의료 선교사는 테일러(Dr. W. Taylor)였는데, 그는 1913년 4월 내한하였다. 원래 그는 지금은 바누아투(Vanuatu, '자유'의 나라'라는 뜻)라고 불리는 뉴헤브리디(New hebrides)의 선교사였다. 그는 통영에 건강관리소(지금의 보건소라고 할 수 있음)를 설치하고 지역민에게 시약과 치료 등 의료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인접한 여러섬 사람들이 의료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대책을 강구하던 중 본국교회의 도움으로 마련된 작은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섬 사람들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봉사하였다. 1916년에는 부산에 이어 이 곳에도 나병환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호주교회 본회의 허락을 얻었으나 한국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18년부터는 (맥크라렌이 전쟁 중 한국을 떠나 있었으므로) 진주의 배돈 병원장을 대행하기도 했고 1923년 맥크라렌이 서울 세브란스의 전의교수로간 이후 테일러는 진주로 배속되어 배돈 병원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래서 통영에서의 의료사역은 비 의료 선교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다가 1928년부터는 츠르딩거(Rev. Trudinger)목사가 이 일을 대신 하였다. 츠르딩거 목사의 부인은 간호사였으므로 시약소의 운영 외에도 어린이와 부녀자의 보건을 위해 소아진료소(Baby Welfare Clinic)를 설치하기도 했다. 1935년 츠르딩거 부부가 부산으로 배속된 이후 1937년에는 레인(Lane)목사 부부가 통영에서 의료사역을 겸하게 되었다. 레인 목사의 부인 역시 간호사였으므로 이 일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었다. 통영 지방에서의 의료활동은 194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선교사의 일제 추방으로 이 일은 중단

되었다.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의 역사와 부산, 경남지방에서의 의료선교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의료선교는 한국에서의 복음전도 운동의 중요한 영역이었다.

1884년 알렌의 입국 이후 한국에는 많은 의료선교사들이 내한하였는데 1907년에는 한국의료선교사 협의회(The Korea Medical Missionary Society)가 조직되어 의료선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1938년 통계에 의하면 주한 의료선교사수는 328명이었는데 교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북장로교 : 84명, 남장로교 : 44명, 북감리회 : 59명, 남감리회 : 32명, 성공회 : 31명, 캐나다연합교회 : 22명, 안식교 : 10명, 독립선교사 : 35명, 천주교 : 11명.

한국에 왔던 의료선교사 중에서 과로와 격무로 순교한 이들로는 헤론, 홀, 랜디스(Eli Barr Landis) 오웬(C. C. Owen)등이다. 혹자는 의료선교를 그만두고 전도사역에 전념하였고(알렌, 빈튼, 하디, 화이팅 등) 다른 일부는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의료 선교사들의 기여와 봉사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초기 의료선교가 남긴 공헌에 대하여 예비슨은 다음의 5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처음 호열자(虎列刺)가 발병했을 때 의료선교사들의 시약, 시료, 종두를 통해 병이 미신과 악신(惡神)에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인간을 미신적 공포에서 해방한 점, 둘째 종두(種痘)의 보급에 의한 어린이 사망율의 급격한 감소, 셋째 이웃을 돕는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구제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원을 제공한 점, 넷째 의료적 활동(예방, 시약 치료, 공중위생 및 보건증진 등)을 통해 기독교신앙이 전파되고 수용된 점, 다섯째 의학교제의 번역 및 의료관계 저술을 통해 과학교육 혹은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지적하였다. (D. R. Avison, *Hisory of medical work*, pp. 41-43 참고)

사실 의료선교가 한국에서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통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증거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